

1/12/20

설교 제목: 천지창조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창세기 1 장 1 절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절관주 요 1:3, 히 1:10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지난 주로 그동안 몇 달에 걸쳐 보았던 마가 복음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2020 년 새해 둘째 주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50 장으로 되어 있는 긴 책이라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창세기는 우리 믿음에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확실히 짚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창세기(Genesis)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본의 제목은 '베레쉬트'로 '태초에'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Genesis)라는 제목은 헬라어를 번역한 70 인역에 따라 나중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성경 각 책의 원본 히브리어 제목은 첫 장, 첫 절, 첫 단어이고 첫 단어 안에는 그 책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도 책 제목에 나타나있는 바 '기원'에 관해서 입니다.

인류 초기의 역사(1-11 장)와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에 관한 역사(12-50장)를 기록하면서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결혼의 기원, 죄의 기원, 출산의 기원, 제사의 기원, 살인의 기원, 죽음의 기원, 심판의 기원, 언약의 기원,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 전쟁의 기원 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그러니까 성경 첫 책, 첫 장, 첫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권세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설명도 논리의 전개도 설득도 변명도 없습니다.

단지 선언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창조론과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고 양육강식 우성학과 같은 자연의 원리에 의해 진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논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조론을 가리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신격화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신화라고 하고 진화론을 과학적인 이론이라고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학이란 원인과 결과 즉 '인과 법칙'으로 증명하며 전개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최초의 원인이 '우연에 의해 발생했다'는 가설 위에 정립된 학문입니다.

'우연에 의해 발생했다'는 가설 자체가 비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과학적인 가설 하에 전개된 논리가 어떻게 과학적이 됩니까?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그들의 가설이 과학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사탄이 의도적으로 주입한 무신론적 사상입니다.

사탄이 인간에게 진화론을 주입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의 창조 진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고 결국은 유황 불이 타오르는 영원한 지옥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놀음에 빠져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 절은 성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쓰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안되든지, 해석이 되든지 안되든지 상관없이 성경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생각은 하늘과 땅 만큼이나 다릅니다.

피조물은 절대로 창조주의 머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쓰신 성경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본문은 성경의 첫 번째 책, 그 중에서도 첫 장, 첫 절로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구멍에 바로 끼우지 않으면 성경을 열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의 선포를 의심없이 믿고 고백할 때 창세기가 열리고 나아가서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베레쉬트'입니다.

'맨 처음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의 시작 뿐만 아니라 우주라는 공간의 시작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원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이 아니고 다른 신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복수 명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단수 명사로 취급하여 단수 동사를 취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 위를 이루지만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는 우주 공간과 땅의 원소들을 가리킵니다.

'창조하셨다'의 히브리어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것 저것들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토대 위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느냐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창조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것입니다.

(출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계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중심은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 '나'가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기 자신'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와 같이 창조의 진리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데에는 사탄의 교묘한 역할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본주의의 삶을 저버리고 인본주의의 삶을 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저버려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과 똑같이 사람들에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 신의 자리를 넘보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권력이나 돈을 갖게 되면 자신이 신이 된 양 다른 사람을 자신의 수하에 두고 명령하고 통치하며 지배하려 드는데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진 신이 되고자 하는 죄성 때문입니다.

요즈음 인간을 미혹하는 그럴듯한 사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은 인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주 멋진 사상인것 같지만 실상은 신본주의를 교묘히 배제시키고 인본주의를 앞세운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된 사상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 오십니다.

하나님이 인생 안에 들어 와야 그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인생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의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영접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캄캄한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존재까지도 부인합니다.

시편 14 편은 이러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시 14: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 드리는 행위입니다.

본문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신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다음의 사실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1.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며 시간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절에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과 동시에 시간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하루 단 한 시도 가질 수 없습니다.

2.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도 없는 혼돈의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골 1: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든 사람이 임자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인간을 포함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이십니다.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자신의 것인양 쓰고 있는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인생도 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것들을 잠시 맡아 운용하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세상 삶을 마치는 날에 우리는 예외없이 맡아 잠시 운용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놓고 갈 것입니다.

3.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천지만물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통치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라는 뜻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만든 것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세상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며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통치 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거부한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4.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고 계시고 영원 후에도 존재하고 계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접붙혀질 때 우리는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접붙혀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인간이라도 제 스스로 만들어진 인간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 장 1 절은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근원이십니다'라는 창조 사관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때 비로소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 사관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의 진리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창조의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성령 충만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논쟁과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창조 사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